

나. 생태문화도시 평가지표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된 세부지표를 적용해 보았으며, 기본적인 지표의 평가내용을 고려요소로 제시하고 향후 평가지표의 가산점 추가 적용을 위한 평가요소를 핵심요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1) 도시의 문화·환경자원 핵심요소

자원의 안전성에서 1인당 공원면적은 $7.76\text{m}^2/\text{인}$ 으로 국토교통부에 따른 국민 1인당 평균 공원면적 $8.09\text{m}^2/\text{인}$ 에 미약하고 서울시 16.31m^2 와 2배정도 차이로 확인되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제4조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에서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을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m^2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결과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최소 6m^2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녹지율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 중 녹지면적 비율을 말하며,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를 말한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녹지의 설치·관리기준에서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제시되어 있다. 원림의 보전은 행정구역 내 녹지면적 중 자연상태의 숲(원림), 생태자연도 1등급, 법규에 의한 보호림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보호해야할 자원이며 생태문화도시는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원림을 보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습지는 국외 습지총량제, 대체습지의 적정 면적에 따른 습지권 가치를 고려하여 행정구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습지의 면적을 산출하고 습지의 가치평가를 통해 등급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습지 내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 인벤토리 작성 등 주민 참여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습지는 핵심요소로 제시하였다. 문화시설 인벤토리는 지역성을 강조한 지